

‘淸州牧’의 歷史·地理的 特性에 따른 地域 正體性

魚江石*

< 目 次 >

- | | |
|---------------------|----------------------|
| I. 緒言 | IV. 넓은 들을 가진 豐饒로운 地域 |
| II. 下三道 交通과 軍事的 要衝地 | V. 結言 |
| III. 강한 反骨 性向 | |

< 국문 초록 >

본 논문은 충청도의 중심 도시인 청주의 역사적 지역 정체성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주는 동서남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특성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교통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특성이 형성되었으며, 역모사건을 시작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청주 토착민들에게 외지인은 한동안 머물다 떠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청주는 목민관이 다스리기 어려운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청주는 서북쪽으로 비옥한 넓은 들판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것도 교통과 군사적 요충이라는 점과 일정부분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은 청주에 호족들이 득세하게 되는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랜 기간 쌓여온 역사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 지역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그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 firiston@chungbuk.ac.kr

결과 내면으로 쉽게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성과 고집스러움이 은연 중에 자리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주제어】 淸州, 三南大路, 秋風嶺, 地域性, 要衝地, 反骨氣質.

I. 緒言

청주는 한양에서 2백 93리 떨어져 있으며, 충청도 감사가 머물고 있는 공州와는 동북쪽으로 100리 거리에 있다. 속리산의 한 줄기가 북쪽으로 뻗어나와 巨大嶺이 되었는데, 청주는 이 거대령 밑에 서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鎭川의 七亭 동쪽에 근원을 두고 있는 鵠川이 남쪽으로 흘러 錦江의 상류인 芙蓉津으로 들어가는데, 그 작천의 동남쪽으로 평탄하고 기름진 큰 들이 40여 리까지 이어져 있어 오곡과 목화를 가꾸기에 알맞다.¹⁾

이처럼 청주는 넓고 비옥한 들을 가지고 있으며, 한양에서 출발하여 추풍령을 거쳐 부산 동래에 이르는 삼남대로의 중간 기착지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안정되고 풍요로운 고을로 알려져, 충주와 더불어 충청도의 중심 고을이 되었다. 청주는 죽령과 조령을 거치는 육로와 남한강 수로의 발달로 유동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하였으며,²⁾ 청주는 한양을 거쳐 추풍령을 넘어 영남으로 가거나, 이곳에서 분기하여 호남으로 가는 삼남대로의 교착지였다. 더구나 넓은 들을 품고 있는 풍요로운 고을이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다.

(청주는) 본래 百濟의 上黨縣으로 娘臂城이라고도 하고, 娘子谷이라고도 하였다. 신라 神文王 5년에 처음 西原小京을 두었다가, 景德王 때에 西原京으로 승격

1)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忠淸道·淸州>.

2) 어강석(2019), 162면.

시켰고, 고려 태조 23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성종 2년에 牧을 설치하고, 14년에 節度使를 두어 全節軍이라 불렀고, 中原道에 소속되었다. 顯宗 3년에 폐지하고 安撫使로 삼았다가 9년에 8牧을 설치하여 다시 목으로 되었다. 본조에서는 그대로 따르던 중, 세종 31년에 관찰사가 목의 일을 겸하여 맡아 보게 하다가 이내 폐지하였고, 세조 때에는 鎭을 설치하였다.³⁾

청주는 본래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땅이었다. 그후 백제에 편입되었는데, 상당현 또는 낭비성이라고 불렀다. 청주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여겨 신라에서 서원경으로 삼기도 하였다. 청주라는 명칭은 고려 태조 때부터 사용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 청주목의 관할은 郡 두 곳과 縣 17 곳이었다. 군은 天安과 沃川이고 현은 文義·清安·鎭川·竹山·稷山·平澤·牙山·新昌·溫水·全義·燕岐·木川·懷仁·靑山·黃澗·永同·報恩이다.⁴⁾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죽산, 평택은 경기도에 속해 있고, 아산, 신창, 온수, 목천은 충남, 전의 연기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해 있다. 그 외 충북 남서부 지방을 대부분 관할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충청도를 대표하는 고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清州本蹟

西原小京西原京	서원소경, 서원경이라 했고
娘臂城云或琅城	낭비성 혹은 낭성이라고도 했다.
百濟由來稱上黨	백제 이후로 상당이라 불렀고
每因有變革州名	매번 나라의 변고 있을 때마다 고을 이름 바뀌었네.
清是三南大廡官	청주는 삼남에서 큰 행랑채의 구실이요
五營門列亦云難	오영문 늘어서 있어 다 말하기도 어렵네.

3) 『新曾東國輿地勝覽』 卷15, 「忠淸道」, <清州牧> : 本百濟上黨縣, 一云娘臂城, 一云郎子谷. 新羅 神文王 五年初 置西原小京, 景德王 陞西原京, 高麗太祖 二十三年 改今名. 成宗二年, 置牧, 十四年 置節度使, 號全節軍, 隸中原道. 顯宗三年 廢爲安撫使, 九年置八牧, 復爲牧. 本朝因之. 世宗 三十一年, 以觀察使兼判牧事, 尋罷之. 世祖朝置鎭.

4) 『世宗實錄』 卷149, 「地理志」, <忠淸道·清州牧> : 所領郡二, 天安·沃川, 縣十七, 文義·清安·鎭川·竹山·稷山·平澤·牙山·新昌·溫水·全義·燕岐·木川·懷仁·靑山·黃澗·永同·報恩.

文明謠俗人多傑
他邑莫能比等看

세간의 풍속 문명하여 인걸이 많이 났으니
다른 읍에 비할 바 아니로다.⁵⁾

이 시는 조선 철종 때 태어나 일제시대까지 살면서 청주에서 활약한 문인인 朴魯重(1863~1945)이 지은 것이다. 박노중은 자가 聖威, 호는 滄菴으로 청주 福臺里에서 태어나 이미 10대 때부터 시로 이름이 있었던 인물이다.⁶⁾ 박노중은 이 시에서 청주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활동한 문인답게 청주의 역사와 지리적 특징을 잘 서술하고 있다.

먼저 청주라는 지역 명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리서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신라시대 두었던 서원소경, 서원경에서부터 백제시대의 명칭인 낭비성 혹은 낭성의 명칭과 상당히라는 명칭 등을 열거하며, 역사적인 큰 변혁이 있을 때마다 각기 다르게 불렸음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청주의 지리적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청주는 삼남지방에서 사랑채 구실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사랑채는 전통적으로 한 집안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다.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규모도 비교적 크고 기품이 있는 곳이다. 창암은 청주가 이처럼 규모도 있으며, 오가는 사람들도 많아 삼남의 중심 고을임을 말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주를 중간 기점으로 하는 삼남대로는 공무로 통행하는 관리들이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으로 가는 길이거나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는 공무의 여정에서 청주성에 이르러 객관에서 쉬었던 것이다. 이러한 청주의 지리적 요건은 외적의 방비와 내부의 반란 등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까지 가지고 있어 절도사, 관찰사 등과 같은 군사편제를 두기도 하였다.

이처럼 삼국시대 이래로 한양과 삼남을 오가는 가장 대표적 길목인 청

5) 朴魯重, 『滄菴集』, 「淸州本蹟」.

6)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2014), 『길 위의 선비 시심에 젖다』, 3면.

주는 삼남대로의 중간 교차지로서 다양한 인물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으며, 특히 서울과 지방을 공무로 오가는 관리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이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오래되고 규모가 큰 古邑으로 주목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청주가 가지는 역사적·지리적인 중요성에 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무한 편이다. 물론 영남이나 호남의 古邑들에 비하여 명확하게 특징지을 수 있는 지역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특징을 구명해 보는 작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청주와 관련한 다양한 문헌자료들을 토대로 청주의 역사적·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형성된 지역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下三道 交通과 軍事的 要衝地

청주목은 전통적으로 삼남대로가 영남과 호남으로 분기되는 지점이었다. 충주를 거쳐 조령을 넘어가는 영남대로는 대체로 과거를 보러 오거나, 조세의 수송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관리들도 이용하긴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고향을 다녀오거나 한양으로 갈 때 주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청주는 추풍령을 넘어 영남으로 가거나, 청주에서 분기하여 호남으로 갈 수 있었으며, 더구나 추풍령길은 죽령이나 조령보다 덜 위험하고 비교적 평탄하였기 때문에 공무로 통행하는 관리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湖南의 길은 茂朱와 錦山을 경유하여 沃川과 文義에 도달하고, 嶺南의 길은 尙州와 金山을 경유하여 黃澗과 永同에 도달하여 淸州에서 합쳐지니, 이는 모두 남쪽의 賊徒들이 돌진해 오는 지름길입니다.7)

7) 金堉, 『潛谷遺稿』卷6, 「請勿移湖西兵營節. 丁酉十月初七日」: 湖南之路, 由茂朱, 錦山, 達於沃川, 文義, 嶺南之路, 由尙州, 金山, 達於黃澗, 永同, 湊集於淸州, 皆南賊橫突之捷路.

13세에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한 金堉(1580~1658)이 1657년 청주목에 같이 있던 兵營을 옮기자는 의견에 청주가 지리적 요충임을 들어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청주목에는 牧民官인 牧使와 主兵官인 兵使가 청주성 내 한 곳에 있어서 일마다 서로 어긋나 그 폐단이 많았던 것이다. 이에 병영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의논하였던 것이다. 이에 잠곡은 청주가 영남에서 올라오거나 호남에서 올라오더라도 모두 여기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이곳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북상하였던 길이었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주청하고 있다.

청주는 이미 고려시대에도 영남에서 올라오는 길목이었다.

8월 왕이 尙州를 출발하여 淸州에 머물렀다. 이에 앞서 왕은 水原에 幸行하여 궁궐을 지으려 하였으나 臺臣들이 말하기를, “수원은 지역이 좁고 바다에 접해 있으므로 왜구의 염려가 있으며, 또 지난번에는 紅巾賊에게 항복하였기 때문에 인심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청주는 三道의 요충지이므로 양곡을 운반하기에 편리하고 이미 巡幸할 처소도 준비되어 있으니, 원컨대 어가를 청주에 머무르소서.” 하니, 왕이 이를 좇아서 丁亥에 상주를 출발하여 壬辰에 청주에 도착하였다.⁸⁾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통치를 받던 한족들이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들을 紅巾賊, 또는 紅頭賊이라고 하였다. 1361년(辛丑, 공민왕 10) 11월 흥건적이 고려의 수도인 松京을 점령하자 공민왕은 급히 지금의 안동인 福州로 피난을 하였다. 다음해인 1362년 정월 송경을 수복하였고, 동북면병마사로 출정한 이성계가 納哈出를 크게 무찔러 쫓아내고 동북의 변경이 평정되었다. 이에 상주로 옮겨와 있던 공민왕은 8월 25일 상주를 출발하여 30일 청주에 도착하였다.

본래 수원에 궁궐을 짓고 머물고자 계획하였으나, 대신들이 적극적으로

8) 安鼎福, 『東史綱目』 14下, 「壬寅年」: 八月王發尙州, 次于淸州. 先是王欲幸水原, 營宮闕, 臺臣言, 水原狹隘濱海, 倭寇可慮, 先降紅賊, 人心難保. 淸州居三道之衝, 便於轉輸, 已備巡幸之所, 願驛主駕淸州. 王從之, 丁亥發尙州, 壬辰到淸州.

로 청주를 추천하였다. 청주가 三道의 요충지이며, 군량을 운반하기 편리하고, 이미 왕이 머물 처소도 마련되어 있음을 들고 있다. 바로 청주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통하는 교통이 요충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의 지리적 특성은 바로 삼남의 도와 원활하게 연결되는 도로망이 있었으며, 이것은 곧 군사적 요충지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청주 고을은 실로 東南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 땅이 넓고 그 백성이 많으며 그 일이 번잡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곳을 다스리는 관리를 보내는 데에 어려움을 느껴 왔다. 더구나 지금은 海寇의 난리를 겪은 뒤라서, 땅이 넓은 것은 옛날 그대로이고 일이 번잡한 것도 옛날 그대로인데 유독 남아 있는 백성만은 옛날에 비하여 열에 두셋도 되지 않으니, 그곳의 관리 노릇하기가 어려운 것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⁹⁾

이 언급은 고려 말의 문인인 陶隱 李崇仁(1347~1392)의 언급으로 李慕之가 청주목사로 부임하게 되자 이를 전송하며 지은 것이다. 도은이 알고 있는 청주도 교통의 요충지이며, 땅이 넓고 일이 번잡하였기 때문에 관리들이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홍건적의 난과 함께 고려를 어려움에 빠뜨린 것이 바로 왜구들의 침략이었다. 남해안과 서해안으로 상륙한 왜구들은 백성들을 죽이고 가옥을 불지르고 노략질을 일삼았다. 이러한 왜구의 침략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으로 피해가 극에 달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난 조선 후기가 되면 점차 조선의 지리적 특징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으며, 삼남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청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청주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黃澗(永同을 합병함)·沃川이고, 6현은 靑山·報恩·文義(懷仁을 합병함)·燕歧(全義를 합병함)·恢德(鎭岑을 합병함)·연산(連山)이다. ○청주 도호부 목사는 사천성 중도 방어사를 겸무한다. ○생각

9) 李崇仁, 『陶隱集』卷4, 「送李慕之赴淸州牧詩序」: 淸爲州實東南之走集也, 其地廣, 其民衆, 其事冗以繁, 國家故難其吏焉. 矧今經海寇之亂, 地之廣猶昔也, 事之冗以繁猶昔也, 獨民之存者比之昔, 不能十之二三焉. 其爲吏之難, 曷勝道哉.

건대, 남쪽 도적이 추풍령을 지나서畿內로 침범하게 되면 황간에 와서 드디어 두 길로 갈라진다. 한 길은 靑山·보은을 지나서 청주로 나오고 한 길은 옥천·문의를 지나 청주로 나와서 京城에 도달한다. 이리하여 청주는 중도의 요충이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하는 것이다.¹⁰⁾

이것은 茶山 丁若鏞(1762~1836)이 그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經世遺表』에 기술한 것이다. 오랫동안 각 지역의 군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하여 만들어낸 다산의 역작이다. 여기에서 다산은 청주목의 특징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임진년에 왜군들이 영남을 통해 한양으로 올라 올 때, 추풍령을 넘어 황간에서 두 길로 갈라졌다. 하나는 보은을 지나 청주에 이르고, 다른 하나는 옥천과 문의를 거쳐 청주로 나와 합쳐져 한양으로 올라갔던 것이다. 이를 상기하고 다산은 청주가 가운데 추풍령길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목사가 방어사의 일을 겸무하도록 구상하였던 것이다.

時事를 적어서 순상에게 증정하고 아울러 贊畫使 李時發 公에게도 바치다	
上黨湖西脊	上黨은 湖西의 척추에 해당하고
新城又嶺傍	新城은 또 거대령 곁에 있네.
地形無失利	지형을 살펴도 불리할 것 전혀 없으니
王業可重光	왕업을 거듭 빛낼 要衝이라 하겠네.
見說施功監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된다고 들었는데
那聞錯意長	이렇듯 원대한 뜻을 두실 줄을 알았으려
不才多負國	나라를 많이도 등진 능력 없는 武夫 대신
儒用始忘亡	儒將이 오셨으니 안심을 해도 되겠구려. ¹¹⁾

10) 丁若鏞, 『經世遺表』 卷3, 「天官修制-郡縣分隸」: 淸州, 領二郡六縣. ○二郡曰黃澗【永同來合之】, 沃川, 六縣曰靑山, 報恩, 文義【懷仁來合之】, 燕岐【全義來合之】, 懷德【鎮岑來合之】, 連山. ○淸州都護府牧使 兼泗川省中道防禦使. ○臣謹案, 南寇, 由秋風嶺而內犯, 則至黃澗, 遂分二路. 一路由靑山報恩, 出于淸州, 一路由沃川文義, 出于淸州, 以達于京城. 淸州者, 中道之要衝, 所以兼防禦使也.

11) 崔崑, 『簡易集』 卷7, 「書事呈巡相 兼奉贊畫使李令公 [時發].」.

이 시는 簡易 崔岾(1539~1612)이 1596년(선조 29) 겨울 贊畫使로 임명되어 충청도에 나가 있는 李時發에게 준 것이다. 이시발(1569~1626)은 청주 梧根里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자는 養久, 호는 碧梧이며 본관은 慶州이다. 西溪 李得胤의 문인이다. 아버지 梧村 李大建과 함께 아호에 모두 '梧'자를 사용한 것은 그들이 살던 고향과 연고를 가진 것이다.

벽오는 임진왜란 때 선조에게 하루빨리 한양으로 환도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장병과 군비를 정비하여 왜적을 완전히 격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명나라 장수 駱尙志의 접반관이 되었으며, 그에게 병법과 한어, 정세 및 예규를 배워 정통하기도 하였다. 이후 도체찰사 유성룡의 종사관, 병조좌랑, 병조정랑, 순무어사 등을 지내면서 왜란의 수습에 큰 공을 세웠다. 1596년 이몽학의 난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웠으나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어 사직하고 청주로 내려와 한동안 지냈으며, 이해 겨울 찬획사가 되어 충주와 청주의 군무를 정비하였던 것이다.

간이는 이 시의 말미에 “上黨山城을 수축한 지 몇 년 되었는데, 이제 와서 城의 形勢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새로 쌓은 성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贊畫이 장차, 이 성에다 군사를 주둔시키려고 했다.(上黨城治之數年, 今以城惡而棄新城, 贊畫將以屯兵者.)”라고 주석을 달고 있어 그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왜란을 겪으며 훼손된 상당산성을 다시 고쳐 쌓았는데, 이때 성의 형세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상당산성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다는 논의가 있게 되었다. 그러자 찬획사로 내려온 벽오가 상당산성의 군사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대로 군대를 주둔하도록 하였다. 이에 간이가 그 처사가 정말 온당하다는 내용을 시에 담아 보낸 것이다. 여기에서 단순히 싸움터에서 활약하였던 武夫의 조치를 儒家를 배운 벽오와 같은 인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음을 칭송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벽오와 간이는 모두 청주가 군사적 요충지로 왕업을 거듭 빛낼 수 있는 곳임을 간파하고 있다. 청주는 호서지방의 척추와 같이 중요한 곳이며, 더구나 상당산성은 영남지역과 바로 이웃하고 있으며, 지형으로서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이곳에 병력을 주둔시켜 방비하는 것이 가

장 직절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삼국시대 이래로 청주는 군사적 요충지로 중요시 되어 서원소경, 서원경을 두었으며,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청주는 영남과 호남을 오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따라서 교통의 요충지이며,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특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통과 군사의 중심은 임진왜란 때 왜군의 이동경로로 이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청주에 병영을 두어 방비하는 방식이 다방면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철도가 운송과 이동의 중심 수단이 되면서 청주가 가지고 있던 교통과 군사적 요충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Ⅲ. 강한 反骨 性向

조정의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르지 않은 것에는 과감하고 끈질기게 바로잡으려는 반골 성향이 바로 청주고을 백성들의 또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을 8월에 靑州에 행차하였다. 이때 청주 사람들이 탄마음을 품어 뜯소문이 자주 일어나므로 왕이 친히 가서 위무하고 그곳에 성을 쌓고 돌아왔다.¹²⁾

이것은 919년(己卯, 태조 2) 8월의 기사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918년 6월 즉위하여 다음해인 919년 정월 수도를 송경으로 옮기면서 실질적인 고려가 시작되었다. 수도를 옮긴 후 처음으로 순행한 곳이 바로 청주였으며, 청주의 사람들이 역심을 품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태조가 직접 행차하여 백성들을 위무하고 성을 쌓고 돌아갔다. 이것은 청주가 후삼국시기부터 유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2) 『高麗史節要』卷1, 「太祖神聖大王 己卯二年」. “秋八月, 幸靑州, 時靑州反側, 訛言屢興, 親往慰撫而城之, 乃還.”

신라와 고려, 후백제가 각축을 벌였던 후삼국시대의 청주는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세력에도 쉽게 동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왕건이나 견훤은 청주의 호족 세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청주 토착 세력들의 항배가 후삼국 전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¹³⁾ 따라서 고려 건국 초기 청주는 남쪽의 최전방이었으며, 항상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가 제일 먼저 와서 위무하였던 것이다.

이미 태조가 즉위한 다음 달인 917년 7월 청주의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움직임이 있었으며, 9월에는 청주의 호족이었던 林春吉이 모반을 꾀하였으나 미리 진압되었다. 10월에는 淸州帥 陳瑄과 宣長 형제가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등 청주 호족과 관련된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대체로 청주 지방 세력들이 고려 건국에 적대적이었음을 말하고 있다.¹⁴⁾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보면 충청도, 그 중에서도 청주는 다양한 명칭의 변경이 있었다. 충청도는 1106년(예종 1) 중원도와 하남도를 합쳐 양광충청주도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면서 충청도라는 명칭이 생겼으며, 1395(태조 4)년 경기도와 충청도가 분리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忠公道로 개칭하였으나 종종반정으로 회복하였다. 1540년(중종 35)에는 淸公道가 되었으나 다음해 복구되었다. 1550년 충주의 역모로 淸洪道라 하였고, 선조 때 충청도로 회복되었다. 1612년(광해군 4) 청주에서의 역모로 忠洪道가 되었고, 다음해 충주에서 난이 일어나자 다시 公洪道가 되었으며, 인조 반정 이후 다시 충청도가 되었다. 1628년(인조 6) 충주의 역모로 公淸道로, 1646년(인조 6) 다시 공주의 역모로 洪淸道로 고쳤다가 1653년(효종 4) 7년만에 충청도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1658년(효종 9) 청주를 서원현으로 강등하면서 忠洪道로 하였으며, 1661년(현종 2) 홍주의 역모로 忠公道라고 하였다가 다시 다음해에 충청도로 회복하였다. 1680년(숙종 6)에 公淸道로, 1681년(숙종 7)에 公洪道, 1689년(숙종 15) 1월 忠洪道로 하였다가 8월에 충

13) 신호철(2013), 120면.

14) 신호철(2013), 123~125면.

청도로 회복했다. 1735년(영조 11)에는 公洪道로 하였다가 1747년(영조 23)에 다시 충청도로 회복시켰다. 1777년(정조 원년)에 公忠道, 1778년(정조 2년)에는 洪忠道로 했다가 다음해 회복했다. 1804년(순조 4)에 公忠道, 1813년(순조 13년) 다시 충청도로, 1817년(순조 17년)에 公淸道, 1826년(순조 26) 1월에는 다시 충청도라고 했다가 다시 10월에는 公忠道, 1834년(순조 34)에서 헌종 즉위년 사이에 다시 충청도로 바뀌었다. 1862년(철종 13)에 公忠道로 개칭되었고, 1871년(고종 8년)에 충청도로 회복되었다.

이처럼 충청도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여러 번 개칭되었으며, 그 이유는 패륜 등 강상을 어긴 일 때문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역모사건이었다. 충청도 중에서도 충주와 청주가 가장 빈번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淸'자가 빠진 명칭은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개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주의 명칭과 위상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었다.

孝宗 7년에 西原縣으로 강등하였다. 顯宗 8년에 복구하고, 肅宗 6년 현으로 내려갔다가 15년에 복구하였다. 英祖 7년에 현으로 강등하였가 16년에 복구하였다. 正祖 원년에 현으로 강등하였다가 10년 복구하였다. 高宗 32년에 군으로 고쳤다.¹⁵⁾

壬午日. 吏曹에서 淸州牧을 西原縣으로 강등시키고 충청도를 公忠道로 바꿀 것을 아뢰었으니, 죄인 韓海玉이 거주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¹⁶⁾

孝宗 7년(1656)에 西原縣으로 강등된 이유는 奴婢가 주인을 살해했기 때문이며, 英祖 7년(1731)에 현으로 강등된 것은 이인좌가 일으킨 戊申亂 때문이었다. 正祖 원년(1777)에 현으로 강등된 것은 逆女 孝任의 출생지이기 때문이었으며, 哲宗 13년(1862)에도 현으로 강등된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金順性이 역모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15) 『增補文獻備考』 卷16, 「輿地考4-郡縣沿革 2」. “孝宗七年降縣. 顯宗八年復舊, 肅宗六年降縣. 十五年復舊, 英祖七年降縣, 十六年復舊. 正祖元年降縣, 十年復舊. 今上三十二年改爲郡.”

16) 『純祖實錄』 卷6, 「純祖 4年(1804) 10月 27日 壬午」. “壬午. 吏曹以淸州牧降爲西原縣, 忠淸道改以公忠道啓, 以罪人海玉居生地也.”

이처럼 조선 후기가 되면 청주는 역모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하게 되었다. 이것은 예전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고장으로 인식되었던 것과 맞물려 가장 큰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조정의 정사가 점차 어지러워지자 공은 조정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 외직을 구해 현감이 되어 나갔다. 西原縣은 옛 淸州로, 평소애 다스리기 힘든 고을이라고 불려졌으며, 도적 떼가 예전부터 많이 발생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되었다. 공이 將吏들과 약속을 하여 그 괴수를 체포해 죽이니, 교서를 내려 표창하였다. 이 공으로 인해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¹⁷⁾

이것은 淸陰 金尙憲(1570~1652)이 지은 韓孝仲(1559~1628)의 신도비문이다. 한효중은 청주의 대표적 土姓인 淸州韓氏로 자는 景張, 호는 石灘이며, 한양 출신이다. 1605년(선조 38) 증광문과에 급제하였으나, 4년 후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국정이 점차 혼탁해지게 되었다. 그러자 조정의 관직을 사직하고 외직으로 나가기를 원하였으며, 이때 다스리기 힘든 고을로 알려졌던 청주의 지방관을 자청하였던 것이다. 광해군 초에 청주에서 반란이 있어 충청도는 公忠道로 바뀌고 淸州牧도 西原縣으로 강등되었던 시기이다.

淸州에 있을 적에는 청주는 풍속이 드세어서 豪族들이 관리들의 정사가 부드러운가 강한가를 엿보아서 거기에 따라 처신하여 대들거나 따르거나 하였다. 어떤 자가 공의 지난 일을 가지고 말하였는데, 그 뜻이 혹 공이 복잡한 사무를 능히 잘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듯하였다. 공은 그곳에 이르러서 눈을 똑바로 하여 바라보고 책상다리를 하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부역을 고르게 하고 옥사를 공평하게 하였다. 그런데 서둘러서 하고 늦춰서 함을 범도에 맞게 하니, 아랫사람들이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한 해가 지나자 잘 다스려져 士民들이 기뻐하면서 복종하였다.¹⁸⁾

17) 金尙憲, 『淸陰集』 卷27, 「同知中樞府事韓公神道碑銘 并序」. “時朝政漸亂, 公不樂在朝, 永爲黜陟. 西原縣舊淸州, 素號劇部, 舊淸故多竊發爲民害. 公約束將吏, 捕得渠首誅之, 教書褒美, 用進絳玉.”

18) 金尙憲, 『淸陰集』 卷30, 「贈左承旨行淸州牧使金公墓碣銘 并序」. “淸州俗饒, 豪族視吏吐茹而爲之俯仰. 有以公已事言者, 或意其剽劇未必能爾. 公至, 目不瞬視, 斂膝清坐, 均徭平獄, 疾徐中度, 下不敢撓. 踰年政成, 士民悅服.”

이것도 청음이 지은 金璣(1576~1613)의 묘지명이다. 김래는 자가 子玉이며, 延興府院君 金悌南의 장자로, 누이가 선조의 계비인 인목왕후이다. 1613년(광해군 5) 이이첨 등에 의하여 永昌大君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癸丑獄事에 연루되어 아버지 김계남과 함께 3형제 모두 사사되었다.

여기에서도 청음은 청주를 풍속이 드세어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호족들이 지방관의 성향이 부드러우나 강한가를 보고 대들거나 따진다고 하였다. 세력을 가진 지방 호족들의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청주지역이 특별히 심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김래가 부임하자 호족들이 복잡한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 텃세를 부렸으나, 점차 공평무사하게 법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자 모두 감복하고 따랐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모반사건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 바로 무신의 난이다. 이인좌가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인좌의 난이라고도 한다. 경종이 죽고 세제였던 영조가 즉위하면서 경종의 지지기반이었던 소론이 몰락하고 노론이 다시 정국을 주도하게 되자, 소론과 남인의 과격파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1728년(영조 4) 3월 15일 청주성을 점령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약 한 달만에 진압되기는 하였지만 조선 후기의 정치와 사회에 큰 파급을 주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중심지였던 청주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청주 백성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것은 아니었지만 청주에서 처음 거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청주목은 서원현으로 강등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이인좌가 거병의 시작을 청주성으로 잡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교통의 요충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영남과 호남의 지원 세력이 거사 뒤에 움직이면 발각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영남에서 동참하고 있는 세력이 추풍령을 흔적없이 넘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한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쉽게 눈을 피할 수 있으며, 청주부터 한양까지는 비교적 평지이지 때문에 많은 군사가 동시에 공격하기에도 유리하였다. 더구나 청주는 군사적으로도 요충이었기 때문에 견고한 성벽과 군량이 충분하였던 것도 큰 요인이었다.

서원에서 슬픔에 잠겨-淸州를 경유하는 길에 무신년의 일을 기술한 것이다

淸州城東蔚林木	청주 성곽 동쪽에 숲이 울창한데
賊兵中宵此潛伏	적병이 한밤중에 잠복을 하였다네.
群盜池邊礮鋒刃	도적떼는 못가에서 칼날 갈고 있을 때
元師營中聞絲竹	원수의 감영에는 풍류 소리 요란했네.
紅酒醕醕挾素妓	맛 좋은 술에 취해 고운 기생 옆에 끼고
劍及牙門慵不起	衙門에 칼날 미쳐도 나른하여 못 일어나네.
輜車載兵計本愚	상여에다 무기 실은 계획 본디 우매하니
竹林濺血功何紀	대숲에다 피를 뿌린 공로 어찌 기록하리.
遺廟丹青立屹然	단청한 옛 사당이 우뚝하게 드높은데
歲時香火執禮虔	철 따라 향화 올려 정성껏 예를 행하네.
淸州有節都使李鳳祥祠堂	청주에 절도사 李鳳祥의 사당이 있다.
河北何曾有義士	하북 땅에 어찌 일찍이 의사가 있었던가
盡節唯一南延年	절개를 다한 이는 南延年 하나일 뿐이네. ¹⁹⁾

이 시는 茶山이 10대 후반에 조부모의 산소가 있는 충주를 거쳐 청주를 지나 전라도로 내려가는 도중에 지은 것이다. 18~19세 때 다산의 패기를 느낄 수 있다. 반란군이 청주에 도착하여 몰래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청주 감영의 장수는 주색에 빠져 방비를 하지 못하였음을 한탄하고 있다. 당시 충청병사는 李鳳祥이었으며, 반란이 일어나자 대숲으로 도망갔다 잡혀 죽었다. 다산은 상여에 무기를 싣고 왔던 우매한 계획을 막지 못했다는 질책과 함께 대숲으로 피했던 충청병사를 어찌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를 말하고, 그를 위해 사당을 짓고 철마다 제를 올리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淸州營將으로 있던 南延年만은 그 충절과 절개에 대한 추송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청주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역모사건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칭이 바뀌거나 목에서 현으로 지위가 강등되는 것을 반복하였다. 그만큼 반골 성향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주는 지방 호족들의 드센 기질 때문에 목민관들도 기피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

19) 丁若鏞, 『茶山詩文集』 卷1, 「悲西原 路由淸州 紀戊申事」.

었다. 그러나 대부분 청주가 지리적·군사적 요충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청주가 사건의 중심 시작지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주의 토착민들은 외지인들에 대한 경계와 배타의식이 강하게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반골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겠다.

IV. 넓은 들을 가진 豊饒로운 地域

영남에서 추풍령을 넘어오면, 황간, 옥천, 영동을 지나게 된다. 이 지역은 대부분 산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을의 규모도 작고 거주민도 많지 않다. 그러나 보은을 지나 청주의 지경에 다다르면 평평한 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동안 계속 산간지역을 넘어오다 보니 청주의 들판이 더욱 넓어 보이게 된다. 청주가 교통의 요충지가 된 것도 높고 험한 추풍령을 넘어오면서 힘든 몸과 마음을 청주에서 쉴 수 있었으며, 한양에서 영남으로 내려갈 때에도 추풍령을 넘어가기 위해 미리 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충주의 조령은 높고 험하기는 하지만 고개를 넘기만 하면 얼마 되지 않아 충주 달천강에 이를 수 있으며, 영남으로 넘어가도 바로 문경, 상주의 큰 고을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추풍령은 조령에 비해 높지 않고 위험이 덜하였지만, 고개를 넘고서도 김천이나 청주까지 이르는 길이 훨씬 멀기 때문에 더 지루하고 힘들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고개를 넘어온 사람이나 넘어가야 할 사람들이 모두 청주에서 쉴 수밖에 없었다.

湖西의 4개 鎭 가운데 淸州가 그 하나이다. 이 고을은 大道의 요충에 자리하여 소속된 郡縣이 다른 鎭보다 많으며 백성이 많기도 한 도의 으뜸이니, 고려 太祖가 “토지가 비옥하고 사람은 호걸이 많다.”라고 칭찬한 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²⁰⁾

20) 李廷龜, 「月沙集」卷37, 「淸州客舍重修記」: “湖右四鎭, 淸其一也. 以其居大道之喉, 所隸郡縣多於他鎭, 而民物之繁夥, 又甲於一道, 麗祖所稱土地沃饒, 人多豪傑者, 有由然矣.”

청주가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호걸들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고려 태조 때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月沙 李廷龜(1564~1635)의 언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주는 큰 길의 요충에 자리하고 있으며, 백성들도 많아서 충청도의 으뜸이 되는 고을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태조가 청주를 칭송한 것은 당연한 일임을 말하고 있다.

추풍령을 넘으며

二白飛騰脊勢強
神龍於此地中藏
溪通北地趨黃澗
山出西枝繞赤裳
每向高峯增壘壘
誰知平陸是關防
淸州大野開千里
一據秋風便搃吭

태백산 소백산 힘차게 내닫다가
이곳에서 용머리 땅속으로 숨었구나.
시내는 북으로 통해 황간으로 치닫고
산줄기 서쪽으로 뻗어 적상산 들렀네.
언제나 산봉우리에만 보루를 증설하니
평원이 요새란 걸 어느 누가 알리오.
청주 고을 큰 들판 천 리에 트였으나
추풍령 접거하면 요충지 장악하리.²¹⁾

이 시는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 茶山 丁若鏞(1762~1836)이 추풍령을 넘어오면서 지은 것이다. 이미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다산은 청주의 지리적 특징을 간파하고 병영을 설치하여 방비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 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는 태백산, 소백산의 산맥이 흘러내린 차령산맥의 산 줄기가 남으로 에워싸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호남으로 흘러 적성산까지 이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산봉우리에 성을 쌓아 적을 대비하지만 실제로는 넓은 평원의 도움 없이는 이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천리에 펼쳐진 청주의 넓은 들판이 주는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추풍령을 방비한다면 천험의 요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주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통의 요지이면서 동시에 군사적인 요충지로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청주가 가지고 있는

21) 丁若鏞, 『茶山詩文集』 卷2, 「踰秋風嶺」.

넓은 뜰에서 나오는 풍요로운 양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병영을 두어 군사를 주둔시키고 외적과의 전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군량미를 얼마나 원활하게 조달하는가에 승패가 달려있다. 따라서 청주가 품고 있는 천리의 넓은 들이 바로 이러한 군사적 요충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주를 요충지로 중요하게 여겼던 논자들은 모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청주의 누정에 화운하다

西原佳麗好風光	서원지방 아름다워 풍광이 좋고
壁上人人姓字芳	벽에 걸린 사람들 모두 뛰어나다네.
城壓湖山臨下界	호수와 산을 누른 城은 아래의 땅을 굽어보고
州雄邦域控中央	나라의 큰 고을로 중앙에 자리하였네.
秋高曠野吞天遠	가을 깊어지자 넓은 들판 멀리 하늘을 삼키고
日暮遙岑引鳥長	해 저물자 먼 산은 오래도록 새를 불러오네.
郭邑雲煙年代舊	읍성을 둘러싼 구름과 연기 여러 해 되었고
古槐疏柳立千章	오래된 느티나무 성긴 버드나무는 천 길이나 되었네. ²²⁾

이 시는 冲庵 金淨(1486~1521)이 충청 서남부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청주에서 머물며 지은 것이다. 정확한 창작년대는 알 수 없지만 앞 뒤의 시들을 보면 이조정랑으로 있던 28세 때인 1513년(癸酉, 중종 8) 가을로 추정할 수 있다. 충암은 보은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였는데, 이 해 가을에 속리산을 거쳐 본가에 들러 성묘를 하였다.²³⁾ 한양에서 청주를 거쳐 보은 속리산을 보고 본가로 향하는 행로 중 청주의 누정에 올라 시를 지은 것이다.

22세였던 1507년(중종 2) 봄에 시행된 증광문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충암은 성균관 전적, 사간원 정언, 홍문관 수찬, 병조좌랑, 헌납 등을 거쳐 이조정랑에 제수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충암에게 청주는 고향이기

22) 金淨, 『冲庵集』卷2, 「和清州樓題」.

23) 金淨, 『冲庵先生年譜』.

때문에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있었다. 먼저 제목에서는 청주라고 하였지만 시의 첫 시작을 '西原'이라고 하여 그 역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청주의 수려한 풍광과 그 정기를 받은 인재들이 수없이 많았음도 함께 말하고 있다. 이어서 함편과 경련에서는 청주의 지리적 특징과 환경을 말하고 있다. 나라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큰 고을임과 천리에 늘어선 가을 들판을 묘사함으로써 화평하고 풍요로운 고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다시 역사적으로 오래된 古邑임을 늙어 고목이 된 느티나무와 버드나무를 들어 확인시키고 있다. 이 시에서 충암은 청주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큰 고을이며, 역사와 전통이 매우 오래되었고, 동시에 넓은 들을 품고 있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고을임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청주가 풍요로운 고읍이라는 인식은 다른 문인들의 시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淸州에 이르렀을 때 시골 노인들이 술 자리를 벌이고 서로들 잔을 권하기에
그 자리에서 취흥에 겨워 지은 시

爲愛田家趣	농촌의 흥취를 너무 좋아하다
渾忘野逕遙	아득히 먼 들판 길 모두 잊었네.
寒泉流作澗	시원한 샘물 흘러 그대로 시내가 되고
古柳臥成橋	오래된 버드나무 쓰러져 다리 되었네.
村釀仍催漉	막걸리 더 걸러 오라 재촉들하고
鄰翁不待招	이웃집 노인 부르지 않아도 달려오네.
飲酣爭席罷	한 잔 얼큰히 마시고 서둘러 자리를 뜨니
秋樹亂鳴鶉	가을 나무 여기저기 매미가 울어대네. ²⁴⁾

이 시는 조선시대 4대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谿谷 張維(1587~1638)가 지은 것이다. 청주에 이르러 시골 노인들과 허물없이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며 즐기는 소탈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계곡도 청주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고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24) 張維, 『谿谷集』 卷27, 「到西原 諸鄉老置酒相要 席間醉賦」.

넓고 넓은 들판을 넘어온 계곡에게 먼저 청주 들판의 평화로운 모습이 특별하게 보였다. 넓은 들판 사이로 시원한 시내가 굽이쳐 흐르고, 시냇가 버드나무는 세월을 못 이기고 늙어 쓰러지니 자연스럽게 나무다리가 되었다고 하였다. 지나가는 길손을 불러 막걸리를 함께 마시고 취흥이 더해지니 이웃 노인들까지 부르지 않아도 찾아와 함께 즐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계곡은 길을 가던 중이었으니 서둘러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훈훈한 청주 고을의 인심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시골 흥취를 흠뻑 느낀 계곡은 길가의 나무에서 우는 늦가을 때미 소리까지 흥겹게 들리는 것이다.

이른 아침 문의현을 떠나며

鶴鳴秋山曙
飛霜散如雨
夜氣滋膏潤
溝水有清乳
初旭照其上
素磔粲可數
黍稷翼平疇
蔓菁覆寒圃
稜石盡削立
崖壁鈔傳土
閭閻八九屋
勤農濟貧窶
春畝置饘粥
秋熟盈罌甌
籬瓠纍纍摘
青黃積我廩
糊口幸有餘
奚暇道甘苦
歎歎栢皇俗
淳龐似太古

두루미 울음 울자 가을 산이 밝아오고
새벽녘의 찬 서리 비처럼 내리는데
밤 기운은 자양분되어 대지를 적시고
도랑물은 불어나 젓 줄기 되었네.
갓 돋은 아침 해 그 위에 비쳐드니
개울가의 조약돌들 알알이 셀 수 있네.
기장이며 피들은 발두둑만큼 자랐고
우거진 채소들은 텃밭을 덮었네.
웅기종기 모난 바위 모두가 깎아 세운 듯
언덕진 벼랑에는 흙빛조차 보이지 않네.
마을의 여덟 아홉의 웅기종기 초가집들
부지런히 농사지어 가난을 견디어가네.
이른 봄 굶주릴 때는 멀건 죽도 모자라지만
가을되어 낱알 익으면 단지에 가득 찬다네.
울타리에 주렁주렁 호박들도 따들이고
누른 것 푸른 것들 시렁 위에 쌓아두니
먹고도 남음이 있으니 그 아니 다행이라
궁한 살림 어느 곁에 쓰다 달다 말을 하리.
서로서로 반겨주는 풍속이 무던하여
순박하고 후덕하기 태고적과 다름없네.

上天匪私力	하늘이 누구에게나 사심이 없듯이
涵毓由聖主	우리가 살아감도 임금의 혜택이라.
願爾勿怠慢	바라건대, 농부들 부지런히 일들 하시오
明歲溢倉庾	그러면 명년에는 창고들 차고 넘치리라. ²⁵⁾

이 시는 조선 후기 문단을 이끌었던 대표적 문인인 潭庭 金鑑(1766~1822)가 지은 것이다. 문의현은 청주목의 관할이다. 영남에서 추풍령을 넘어오면 대체로 문의를 지나 청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에는 文山館이라는 큰 객사가 있다. 아마도 담정은 이곳에서 밤을 보내고 이른 새벽 청주를 향해 길을 나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는 크게 12구씩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총 24구의 고체이다. 전반부는 이른 새벽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앞의 네 구는 이른 새벽 여명이 밝아오면서 대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어 해가 돋아 환하게 밝은 후의 모습을 다음 네 구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 네 구에서는 그 사이사이 자리 잡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캄캄한 새벽부터 점차 여명이 밝아오고, 이어 해가 뜬 후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담정의 감정은 평화롭고 활기에 차 있다. 무성하게 자라 밭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곡식, 텃밭에 우거진 채소들, 맑고 깨끗한 시냇물, 비옥한 토지, 밝게 빛나는 태양빛 등 모두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기에 필요한 것들이다.

후반부에서는 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순박하고 후덕한 인심을 묘사하고 있다. 봄철에 잠시 굶주릴 수도 있지만, 열심히 심고 가꾸면 가을에는 먹고 남을만큼 풍요로우며, 서로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고을 백성들의 삶을 보면 태고적 성인의 백성들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담정은 부지런하게 힘써 일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

25) 金鑑, 『潭庭遺藁』卷1, 「早發文義縣」.

이처럼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각에 비친 청주는 넓은 들을 품고 있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이다.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주고을의 백성들은 순박하고 후덕한 성인들의 백성들과 같다고 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나라의 중앙에서 큰 고을을 이루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비옥하고 넓은 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통과 군사적 요충으로서의 특성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V. 結言

청주는 삼국시대로부터 각국의 접경지역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특한 하나의 지역적 특성을 설정하기 어렵다. 독특하고 특징적인 지역성을 지니고 있는 타지역의 고읍들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온전히 어느 한 지역을 점유하여 긴 시간을 함께 거주하면서 그 지역 나름의 문화와 지역성을 형성하는 데 반하여, 청주는 대부분 오고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청주의 정체성은 결국 동서남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특성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양에서 영남, 호남으로 이어지는 삼남대로의 중간 교차지라는 점은 청주의 정체성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교통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특성이 형성되었으며, 역모 사건을 시작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토착민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동안 머물다 떠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허여할 수 없었으며, 외지인들을 쉽게 받아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청주는 목민관이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주는 서북쪽으로 비옥한 넓은 들판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것도 교통과 군사적 요충이라는 점과

일정부분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은 청주에 호족들이 득세하게 되는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청주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고읍들과 다르게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랜 기간 쌓여온 역사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 지역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내면으로 쉽게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성과 고집스러움이 은연중에 자리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參考 文獻〉

『世宗實錄』

『純祖實錄』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

李崇仁, 『陶隱集』.

金淨, 『冲庵集』.

金淨, 『冲庵先生年譜』.

張維, 『谿谷集』.

崔岏, 『簡易集』.

李廷龜, 『月沙集』.

金尙憲, 『淸陰集』.

金堉, 『潛谷遺稿』.

金鑑, 『潭庭遺藁』.

安鼎福, 『東史綱目』.

丁若鏞, 『經世遺表』.

丁若鏞, 『茶山詩文集』.

李重煥, 『擇里志』.

朴魯重, 『滄菴集』.

신호철(2013), 「고려시대 청주 지방 세력의 중앙 진출과 그 세력변화」, 『중원문화연구』

제21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19~149면.

어강석(2019),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문에 나타난 ‘충주(忠州)’에 대한 지역 인식」, 『국

제어문』 제82집, 국제어문학회, 161~186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2014), 『길 위의 선비 시심에 젖다』, 31면.

Abstract

Regional Identity of ‘Cheongju-mok’ Based on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EO, Kangs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the historical regional identity of Cheongju, the key city of Chungcheong Province. The feature that Cheongju is a transportation hub to move easily from east to west and south to north has become a key factor in shaping regional identity. Because of the ease of traffic,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strategic point were formed and it became a good place to start plot treason.

Also, the natives of Cheongju did not easily open their heart to outsiders because they stayed for a while and left. As a result, Cheongju inevitably became a difficult area for the Mokmingwan to govern.

People in Cheongju were able to live relatively prosperous lives because it had a large fertile field northwest of the country. This is partly related to the fact that it is a major transportation and military hub.

This material affluence could serve as an economic foundation for the powerful family to become influential in Cheongju. This has formed for the long-standing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is the wisdom of the people of this region to lead their lives here.

【Key words】 Cheongju, Samnamdaero, Chupungryeong, Regional characteristics, Strategic point, Rebellious nature.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완료일 : 12월 8일, 게재확정일 : 12월 22일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firiston@chungbuk.ac.kr

